

LH '300억 통합 발주' 고수...지역 중소건설사 반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발주 방식 도마위 대행사 독식 구조에 지역업체 참여 제한 국회 국민청원 제기...분할 발주 등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방식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H가 공사 규모를 300억원 이상의 대형 통합 방식으로 묶어 발주하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LH 공공건설 발주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원의 핵심은 LH의 '매머드급' 통합 발주가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고

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LH의 방식은 이와 대조적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 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이 높아져 사실상 전국 단위 대형 건설사들만의 '리그'가 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대행사 중심의 수주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폐쇄적인 입찰 구조에 따른 답합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률과 투찰 패턴, 참여업체 수 등을 분석하는 입찰담당자후분석시스템(BRIAS)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업체가 적은 공사에서 낙찰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답합 의심 신호로 분석된다.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가 낙찰을 받은 뒤 실제 시공은 지역 중소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맡기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직접시공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청원인은 공공공사 발주 구조 개선을 위해 ▲ 300억원 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 확대 ▲ 입찰 담합 방지 제도 강화 ▲ 낙찰 업체 직접시공 실태 점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사를 150억원 미만 공구로 분할해 지역 제한 입찰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공공공사의 발주 구조가 지역 건설 생태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단위 대형 건설사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공사 분할 발주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역 상생 기조 속에서 LH가 기존의 통합 발주 방식의 변화를 이룰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재만 기자



NH농협 해남군지부, 해남사랑카드 적립금 전달

군에 9천700만원...지역발전 사업 활용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해남사랑카드 적립기금을 해남군에 전달했다.

〈사진〉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는 8일 "지난 6일 지부 회의실에서 현조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에 해남사랑카드 적립기금 9천7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남군과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는 지역 상생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해남사랑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해남군에 전달하고 있다. 적립 규모

는 카드 사용액의 0.1-1% 수준으로 매년 적립된 금액을 기금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 역시 해남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해남군은 이를 군 예산에 편성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조 지부장은 "해남사랑카드 적립금 전달식은 해남군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금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태호기자

이란사태 빛투 절정...닷새간 마통 1조3천억 늘었다

5대은행 잔액 40조7천억 3년여 만에 최대

이란 사태로 국내 증시가 10% 넘게 급등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자 '빛투' (대출로 투자)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하루 수 천억원씩 불어나는 은행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이나 예금에서 수조원씩 빠져나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증시로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천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출의 잔액으로, 2월 말(39조4천249억원) 이후 불과 닷새 만에 1조2천979억원 급증했다. 실제 영업일(3-5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만에 약 1조3천억원이 한꺼번에 불어난 셈이다.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3년 2개월여만에 최대 기록이다.

아직 5일간의 통계지만 증가 폭(+1조2천979억원)은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2조1천263억원) 이래 5년 3개월여만에 가장 큰 상대다.

2020년 하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에 극복



늘뛰는 환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모습. /연합뉴스

하기 위해 조성된 초저금리 환경을 바탕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빛투가 한창 늘어나던 시기였다.

이후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2021년 4월 말(5조2천8천956억원) 정점을 찍고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어 2023년 2월 말 이후 줄곧 30조원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품

선 효과와 국내의 증시 호황 등의 영향으로 다시 11월 말 40조원대(40조837억원)에 올라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는 증권사로 이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난주 코스피·코스닥 급락 당시 증권사 이체액이 하루 1천5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미뤄 한도 대출(마통) 중심의 빛투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전-서울과기대, 에너지신기술융합학과 2기 입학식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기대

한국전력은 8일 "지난 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계약학과로 운영 중인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의 제2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는 에너지 맞춤형 후진학 정규 교육과정(4년제)으로 졸업 시 공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주중(월-목) 온라인 교육과 주말(금-토) 대면 집중교육으로 구성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력그룹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이 참여 중인 본과정에 올리는 한국가스공사가 새롭게 합류해 에너지 산업계의 산학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제2기 신입생 35명과 한전 안중은 경영관리부사장을 비롯해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 학과 교수진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후진학 육성체계 확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중은 부사장은 "AI 시대에 에너지 공급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본 과정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에너지신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신입생을 격려했다. /임재만기자

로또복권

〈제 1214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0 15 19 27 30 33 /보너스 14		
1등	2,431,577,188	6개 숫자 일치
2등	49,122,77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344,156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형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형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형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